9과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

오늘 초등공과입니다. 제 8과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8.Entonces salió Noé, y sus hijos, su mujer, y las mujeres de sus hijos con él.

19.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9.Todos los animales, y todo reptil y toda ave, todo lo que se mueve sobre la tierra según sus especies, salieron del arca.

20절

20.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0.Y edificó Noé un altar a Jehová, y tomó de todo animal limpio y de toda ave limpia, y ofreció holocausto en el altar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가족들과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렸던 것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20장에 보면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그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미가 있는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살아남고 나와서 처음으로 드린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또한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13.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3.Mi arco he puesto en las nubes, el cual será por señal del pacto entre mí y la tierra.

14.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4.Y sucederá que cuando haga venir nubes sobre la tierra, se dejará ver

entonces mi arco en las nubes.

15.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5 Y me acordaré del pacto mío, que hay entre mí y vosotros y todo ser viviente de toda carne; y no habrá más diluvio de aguas para destruir toda carne.

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내주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배울 말씀이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큰 교훈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창세기 4장 19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19.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씰라였더라
19 Y Lamec tomó para sí dos mujeres; el nombre de la una fue Ada, y el nombre de la otra, Zila.

23절

23.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3 Y dijo Lamec a sus mujeres: Ada y Zila, oíd mi voz; Mujeres de Lamec, escuchad mi dicho:
Que un varón mataré por mi herida, Y un joven por mi golpe

라멕의 이름이 나오고요 라멕시대에 벌써 두 아내를 취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창상을 상처를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이야기 합니다

죄가 충만해 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창세가 5장 28절에 보면

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28. Vivió Lamec ciento ochenta y dos años, y engendró un hijo;

29.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29. y llamó su nombre Noé,[a] diciendo: Este nos aliviará de nuestras obras y del trabajo de nuestras manos, a causa de la tierra que Jehová maldijo.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다 그 노아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주신 그 이전의 시대를 보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대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할 수 받게 없는 상황이 되었고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받게 없는 상황 뒤에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는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홍수가 나도 죽지 않으려고 단을 쌓았죠 탑을 쌓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번개를 쳐서 당장당장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일은 당장당장 죽인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일이 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벨탑 사건때 하나님 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그 심판 이후에는 그 내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아빠가 아이를 훈계하고 때려줄 때 죽으라고 때리진 않습니다

그 매 뒤에는 더 큰 은혜가 뒤따라 가는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그

뒤에는 더 큰 은혜가 담아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어놓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셨지만 사실은 더 큰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단과 무지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제단은 희생을 말하고 있으며 무지개는 언약과 보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이 거할 곳이 있는

번제 그 번제를 드려야 하는 제단을 마련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그 희생이 왜 필요했냐?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특성이 뭐냐 또 그 희생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겁니다.

그런 희생의 필요성과 특성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 인간들의 생애가 정말 축복을 받고 풍성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니와 영원한 행

복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긍휼을 구하는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일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노아는 모든일을 자신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출발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온세상의 평화를 이룩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됐던 거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신분이 예수님이였구요

하나님과 죄많은 인간사이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노아가 그와같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했구요 그 희생제물은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처럼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0.Y edificó Noé un altar a Jehová, y tomó de todo animal limpio y de toda ave limpia, y ofreció holocausto en el altar.

그러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의 특성은 바로 정결한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완전한 제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희생이 되신거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이라고 되어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있는거죠

그 희생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라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제사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Y andad en amor, como también Cristo nos amó, y se entregó a sí mismo

por nosotros, ofrenda y sacrificio a Dios en olor fragante.

라고 되어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다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함에 대한 보증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더 이상 저주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과 결코 정죄함이 없어진거죠

또 세 번째는 끊임없는 축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있는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있을 때 안식이 이루어 지는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 Bendito sea el Dios y Padre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que nos bendijo con toda bendición espiritual en los lugares celestiales en Cristo,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제일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렸던 것이 지금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것은

구원을 받은 거잖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드린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로마서 12장에 1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잘 나와있습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Así que, hermanos, os ruego por las misericordias de Dios, que presentéis vuestros cuerpos en sacrificio vivo, santo, agradable a Dios, que es vuestro culto racional.

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뵈올날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대한 예배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33.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Mas buscad primeramente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y todas estas cosas os serán añadidas.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언약의 무지개는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신 후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며 이제 다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은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다시한번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함으로써 멸망하게 되는데요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음에 무지개가 보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테도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통한 언약이 의마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구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언약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은혜의 표현이죠 우리와 상의 하셔서 맺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겁니다.

사람에게는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사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주셔될 책임이 있는거구요 피조물들은 창조주에게 받아야할 책임이 있는거잖아요

사실은 인간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 창조주의 은혜를 배척한 결과일 수 받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한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그 언약에 얽메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공의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대신 죽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법 속죄 제사를 세우게 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큰 사랑의 또다른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 하시는 거죠 그거를 일방적인 언약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내 참는 언약이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다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홍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이제 것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는 걸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역사를 통한 참으심도 있겠지만요 구원 받은 이후에 나 자신에 대한 참을성도

참 많으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앞에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저 자신이지만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약 100년 정도 라고 되어있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아이가 평생을 자라면서 약 100세가 될 때까지 허구헛날

만든게 그 노아의 방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방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주 지겹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지만 어떤 언약이냐

바로 참는 언약 인내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도 탕자와 같이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등돌리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여러번 있습니다. 그때 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참으시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우신 인내로써 우리를 멸하시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때까지 기다리신다 바로 인내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영원토록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광채로 빛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하신 것처럼 노아는 홍수 후에 보여주신

그 언약의 무지개가 영원한 것을 알죠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 마다 또 금방 없어지잖아요 물방울이 없어져가지고

그런거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 언약이 생각은 나다가도 없어지고 나다가 없어지고 하는거죠

그렇지만 생각이 안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다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다른 방법 불로는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6절 7절에요

6.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6.por lo cual el mundo de entonces pereció anegado en agua;

7.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7. pero los cielos y la tierra que existen ahora, están reservados por la misma palabra, guardados para el fuego en el día del juicio y de la perdición de los hombres impíos.

그래서 오히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바다 물속에사는 물고기들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지구의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다시는 물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 완전한 심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1장 2절에도 보면은요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 Destruiré por completo todas las cosas de sobre la faz de la tierra, dice Jehová

3.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Destruiré los hombres y las bestias; destruiré las aves del cielo y los peces del mar, y cortaré a los impíos; y raeré a los hombres de sobre la faz de la tierra, dice Jehová.

스바냐 1장 18절 말씀에도요

18.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18. Ni su plata ni su oro podrá librarlos en el día de la ira de Jehová, pues toda la tierra será consumida con el fuego de su celo; porque ciertamente destrucción apresurada hará de todos los habitantes de la tierra.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만 보면 사실은

좀 겁나죠 이렇게 놀랍게 멸절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겁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라고 붙여놓은게

안전 표지판입니다. 또 내일 천둥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비바람 부니까 바닷가 나가지 말라 예보했을 때

그것은 가지 말라고 겁주는게 아니라 정말 위험하니까 가지말라고 이야기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거나

아니면 웃음거리로 여긴다면 그 결과가 바로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시고 오래참음으로 기다리시지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은 피할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23.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3.¿Quiero yo la muerte del impío? dice Jehová el Señor. ¿No vivirá, si se apartare de sus caminos?

라고 되어있구요 18장 32절에도 보면

3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32.Porque no quiero la muerte del que muere, dice Jehová el Señor; convertíos, pues, y viviréis.

그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기에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잖아요

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므로 멸망하고 마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4.¿O menosprecias las riquezas de su benignidad, paciencia y longanimidad, ignorando que su benignidad te guía al arrepentimiento?

5.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5.Pero por tu dureza y por tu corazón no arrepentido, atesoras para ti mismo ira para el día de la ira y de la revelación del justo juicio de Dios,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몰라서 몰라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각 사람에게 주셨구요 양심도 주셨구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거나 막지만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도와주실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 17-18절에 보면

17.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7.Por lo cual, queriendo Dios mostrar más abundantemente a los herederos de la promesa la inmutabilidad de su consejo, interpuso juramento;

18.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para que por dos cosas inmutables, en las cuales es imposible que Dios mienta, tengamos un fortísimo consuelo los que hemos acudido para asirnos

de la esperanza puesta delante de nosotros.

라고 하셨구요

또한 약속 거짓말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맹세로 약속을 하셨죠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9.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9.Porque esto me será como en los días de Noé, cuando juré que nunca más las aguas de Noé pasarían sobre la tierra; así he jurado que no me enojaré contra ti, ni te reñiré.

10.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Porque los montes se moverán, y los collados temblarán, pero no se apartará de ti mi misericordia, ni el pacto de mi paz se quebrantará, dijo Jehová, el que tiene misericordia de ti.

이 말씀 보면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손가락 걸면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솔직함과 맹세로 하신 말씀들을 다 성경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또하나 하나님의 약속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는 오랜 기간동안에

사람들의 비판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에게 단을 쌓고 무지개 언약을 되세긴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니면 더 큰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건 당연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1.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 Te encarezco delante de Dios y del Señor Jesucristo, que juzgará a los vivos y a los muertos en su manifestación y en su reino,

2.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que prediques la palabra; que instes a tiempo y fuera de tiempo; redarguye, reprende, exhorta con toda paciencia y doctrina.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죄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통로를 외면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내 가족 또는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축복의 통로는 누구일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8.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Y todo esto proviene de Dios, quien nos reconcilió consigo mismo por Cristo, y nos dio el ministerio de la reconciliación;

19.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que Dios estaba en Cristo reconciliando consigo al mundo, no tomándoles en cuenta a los hombres sus pecados, y nos encargó a nosotros la palabra de la reconciliación.

라고 되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많은 인간을 화목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화목하게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니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노아처럼 더욱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거

우리 또한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구요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약속을 많은 사람들 한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를 거치면서 노아가 그 생명을 건지고 나아와서 하나님께 드린 제단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무지개 언약 우리가 교훈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